

| 권두언 |

## ‘공정’과 ‘사회적 대화’

‘공정’ 바람이 거세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서 촉발된 ‘공정’ 논란이 세차게 일더니, 마침내 ‘공정’과 ‘능력’을 앞세운 30대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되는,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이변이 일어났다. 요 근래 20-30대 유능한 청년들 가운데 ‘새치기 당했을 때의 황당함’ 비슷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탓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능력주의나 공정 개념이 편협하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정 담론을 통해 ‘과정’이나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공정 담론은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도 꼼꼼이 생각해볼 만하다.

공정과 사회적 대화는 모두 과정이나 절차와 관련된 개념이다. 둘 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대체로 공정은 ‘절차적 정의’에 가까우며, 사회적 대화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한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는 열매 맺기도 어렵거니와,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공정은 ‘경쟁’ 개념과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데 반해, 사회적 대화는 ‘소통과 이해, 타협과 포용’ 등의 개념과 친화적이다. 이 점에서 둘은 갈라진다. 이는 사회적 대화가 공정의 대원칙에 입각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조직된 이해당사자간의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조율할 때에는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조직된 노사로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동 이슈나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공정 뿐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사회적 대



**장홍근**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

화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심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조직된 이해당사자들의 큰 목소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세미한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사회적 대화는 더 넓고 깊게 진전될 것이다. 사회적 대화가, 경쟁 원칙으로서의 협애한 공정 담론을 넘어, '더 큰 공정'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호 사회적 대화 특별 대답은 청년 고용 문제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김종진 위원과 문유진 대표, 이한솔 위원 그리고 조정선 서기관을 모시고 청년고용 문제의 현주소와 원인, 정책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짚어 보았다. 정책적 난제 중의 난제인 청년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원칙과 주제,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회적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논단에서는 세 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조현민 전문위원은 유연하고 조정된 단체교섭체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성과를 살펴본다. 이종수 노무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자회사 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남재욱 박사는 쟁점으로 떠오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과제를 짚었다. 더 큰 공정의 관점에서 일별해 보기를 권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곧 무더운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우리 경제사회와 노동세계의 발전을 그리며 구슬땀을 흘릴 것이다. '사회적 대화 노동자들'이다. 독자들과 함께 '보다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빌며 격려를 보낸다.